



성당에서는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많은지요?

주님의 계명에 충실하려는 형제님의 다짐에 적극적인 응원을 보내 드립니다. 우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매일 꼼꼼히 기록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리고 싶군요. 기쁨과 감사를 일일이 기억하는 일은 하느님을 사사건건 간섭하고 행동을 채점하는 분으로 고향한 시점에서 탈출하도록 도와 줄 것이니까요. 그분의 명령은 우리 삶을 윤택하고 향기롭게 합니다. 그분의 명령은 실천함으로써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물론 하느님께서서는 카인의 제사를 거부하셨다는 점은 명심할 일입니다. 이는 그분께서 받아들이지 못할 제사와 기도가 있다는 분명한 이르심이니까요. 미사참례 중에는 살아계신 그분의 현존을 충분히 인식하여 그분께 합당한 예의를 갖춰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을 향한 예의가 무조건 '읍'하는 굴종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 그분의 눈앞에서만 굽신대는 비굴한 행위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주님을 향한 믿음은 사랑의 고백입니다. 때문에 계명과 걸치레에 묶여있다면 그분과의 사랑을 나누지 못하도록 훼방당합니다.

‘있는 그대로’ 그분을 뵈고 ‘이 모습 이대로’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은 바른 신앙의 지름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어 지금 나와 함께하시는 그분의 현존을 고스란히 받아들이세요. ‘무조건적인 믿음’만이 영혼의 자유를 선물하여 생각과 삶을 변화시켜 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새해가 시작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성전에 들어가는 이들의 기쁨

(시편 100, 1-5)

시작 성가

- 진행자** • 가톨릭 성가 1장 ‘나는 굳게 믿나이다’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당신께서 늘 저희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소서
 - 사랑자체인 아버지! 저희가 당신 사랑을 느끼고 나누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한 분이 시편 제10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100, 1 온 세상아, 주님께 환성 올려라.

- 2 기뻐하며 주님을 섬겨라.
환호하며 그분 앞으로 나아가라.

- 3 너희는 알아라, 주님께서 하느님이심을.
그분께서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것,
그분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 떼이여라.
- 4 감사드리며 그분 문으로 들어가라.
찬양드리며 그분 앞뜰로 들어가라.
그분을 찬송하며 그 이름을 찬미하여라.
- 5 주님께서서는 선하시고
그분의 자애는 영원하며
그분의 성실은 대대에 이르신다.

- 진행자**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 진행자**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 진행자**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 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특히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없을 때는 아래의 질문을 참고할 수 있다.)
- 미사나 기도를 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설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서는지 나누어 봅시다.
 - 일상 안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기뻐하며 환호하고 싶었던 경험이 있으면 나누어 봅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우리는 하느님의 것, 하느님의 백성이며 자녀가 됩니다.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것이며, 우리는 참

으로 완벽한 하느님의 백(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커다란 특권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시니 그분 앞에 나아가 나의 아픔과 괴로움, 기쁜 일들을 아뢰며 성전에 고요히 앉아 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맘을 알고 계십니다. 흐느끼는 우리를 가만히 바라보시고, 당신 두 팔로 고요히 등 뒤에서 감싸 안으시는 당신의 따스한 손길을 느낍니다. “딸아 괜찮다. 아들이 괜찮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너를 항상 사랑하고 있다.”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소연과 부르짖음에서 차츰 침묵의 고요 속으로 들어갑니다. 침묵 속에서 전해지는 주님의 위로와 포근함에 나의 마음이 따스함과 안도감을 느낍니다. 주님 사랑으로 내 안에서 나 자신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과 나를 귀하고 아름답게 바라보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합니다. 남자와 여자로 유일무이하게 창조하신 주님의 손길을 다시금 나의 몸을 통해서 바라보고 느낍니다. 하느님께서 흠으로 빚으시고 코에 숨을 불어 넣으시어 사람이 된 몸, 하느님의 영이 자리한 나의 몸, 나의 몸을 통해 하느님의 숨결을 체험합니다. 하느님께서 나보다 더 먼저 내 안에 자리하시니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고요와 침묵 속에서 그분을 만납니다. 그래서 나의 몸은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고, 주님께서 이미 내 안에 와 계시기에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몸을 통해 하느님을 체험하고, 나의 몸을 통해 기도를 드리며 하느님을 찬양합니다. 몸을 움직여 당신 문으로 들어가고 당신 안뜰로 들어가서 찬양, 찬미,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몸이 당신의 선하심을 이야기하며, 당신의 자애가 영원히 대대로 이어지리라는 것을 나의 몸을 통해서 노래합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기타 토의

진행자 • 지날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이제 이번 달의 우리 소공동체가 실천한 사항들을 함께 논의해 봅시다.

(실천사항 논의 후) 공지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침 기도

진행자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 성가

진행자 • 가톨릭 성가 1장 ‘나는 굳게 믿나이다’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컨테이너에서 꽃피는 사랑과 친교 |

- 용원본당 1구역 2반 소공동체장 김순이(안젤라) -

용원본당은 공소로 지내온 지 오십여 년 만에 덕산동본당에서 분리되어 본당으로 승격되었고, 올해로 설립 10주년을 맞이 합니다. 아직 제대로 성전을 짓지 못해 컨테이너에 감실을 모시고 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레지오 회합과 신심단체 모임의 장소도 그러하고, 그밖에 창고와 사무실, 본당 주방도 모두 컨테이너를 활용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많은 불편함 속에서도 교우들은 기쁨을 잃지 않고, 성전이 하루빨리 지어 지길 기도드리며 마음을 한데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기도와 활동을 통한 소공동체장들의 역할은 크기만 합니다.

용원본당 소공동체는 4개 구역 12개 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쉬는 교우 권면, 예비신자 찾기, 질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 돌보기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각 가정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을 찾아 나서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아픔을 함께 나눕니다.

저희 1구역 2반 공동체는 부부 중심모임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각 가정에서 모여 복음말씀을 나누고 친교를 이루어 갑니다. 부부모임이라 조금 소란스럽기도 하지만 나눔을 할 때는 모두 진지해집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기쁜 일에 함께 기뻐하며 본당에서 필요한 일들을 찾아 도움이 되고자 노력

하는 모습은 참 아름답습니다. 특별히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들의 어려움을 눈여겨보고, 그들의 필요에 망설임 없이 나서 도와주는 한 형제의 삶을 통한 선교는 공동체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 평신도 주일부터 시작된 ‘평신도 희년’, 말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특별히 주어진 우리들의 희년이 참된 기쁨의 시간이 되어 하느님을 더 깊이 만나고 영적으로 성숙해나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해 봅니다. 용원본당 소공동체가 우리 주위의 이웃, 특별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한 이들 속으로 깊이 들어가, 아픔에 함께 하고 그 고통을 나누어 가지는 사랑과 친교의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기도해봅니다.

